

아동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전북도,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위한 시설 확충·심리 치료 지원 등 추진

전북도가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를 토대로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4일 밝혔다.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피해아동 분리 보호를 위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선도지역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익산,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4명과 아동보호전문위원 22명을 배치해, 학대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했다.

또한,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에 왔다.

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운영해 시·군 및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신

설, 전담인력을 내년까지 89명 확충해 아동학대 조사·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아동학대 전담인력 38명을 추가 배치해 아동학대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아동학대 단계별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과 협업을 강화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경찰 112로 일원화해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인지 시에는 112에 신고해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제공한다.

'즉각분리제도' 시행(3월 30일부터)에 따른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간다.

올해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비시설로 전환해 신규 개설, 군산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신설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탁가정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기능 회복과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도 아동의 정서·놀이치료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검진 미수검 등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도내 모든 아동이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므로,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4일 전북도청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 그린노블 약정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 그린노블 약정식

1억원 이상 기부 개인 고액후원자 네트워크... 7명 신규 약정자 참석

전북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4일 전북도청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 그린노블 약정식'을 진행했다.

'전북 그린노블'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북 지역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개인당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 고액후원자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정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이인호(㈜그린 대표, 김용현(㈜정석케이칼 대표, 이도훈(㈜코아스 대표, 고동명 헬스앤뷰티(주) 대표, 박

금옥(㈜아리울수산 대표, 박노희(㈜화산 대표, 배동수(㈜에스제이캡 대표 등 총 7명의 신규 그린노블 약정자가 참석했다.

그린노블 약정자들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전북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의 꿈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따뜻한 손길과 적극적인 나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조성민 후원금은 전북지역 소외계층 아동의 보육, 학습, 의료, 주거, 아동옹호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

른 상황 속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는 전북 그린노블 약정자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문정훈 본부장은 "후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아동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 본부는 1억원 이상 고액후원자 모인 '그린노블'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중이며, 2020년에는 결연사업을 통해 아동 3,654명에게 29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전북도는 축산법에 따라 2020년 12월 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가족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자들과 축산차량등록자는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족전염병으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교육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교재 또한 축종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신규허가자도 소과정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관행사

6일 전북도청 주차장서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돕고, 도민들에게는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설 명절 선물용으로 제작된 세트 위주로 품목을 구성했으며, 과일 3종(사과, 배, 한라봉), 가공품 2종(약과, 돈가스), 수산물 3종(마른 김, 멸치, 수산물물세트) 총 8개 품목 2,030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또한, 꽃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톨립 1,000송이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꽃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유호상 기자

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전북도가 오는 2023년까지 756억원(국비 529, 시군비 227)을 투입, 새만금 상류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산복동'과 '부안군 부안읍' 하수관로 등 2개소다. /유호상 기자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집중호우 시 일시에 몰려든 우수가 하수관로 용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확대하고, 저류시설과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유호상 기자

군산항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설치 행정력 집중

전북도, 한진·석도국제해리 등과 적극 협력키로

전북도가 군산항을 중국 전자상거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주)한진과 석도국제해리(주)와 손잡고 군산항에 중국 전자상거래화물 운치를 위한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향후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돼 군산항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도, 군산시, (주)한진, 석도국제해리(주),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군산항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사업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통관장 설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 전자상거래 화물은 2015년 1,600만 건에서 2019년 4,300만건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 323만건에서 2019년 1,160만건으로 359% 급증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은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통관하고 있다.

아울러, 보세운송·물류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에도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급증하고 있다.

도는 군산항이 중국 동부권 산동성 위해·연태·청도 등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석도간 주 6회 데일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설치로 침체된 군산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의 /유호상 기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한진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 글로벌사업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군산항 인근부지를 확보, 2022년 상반기 '해상특송화물통관장'을 개장한다는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투자계획, 인력운용계획, 고용인력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안수산업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해상특송화물통관장'이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회복과 군산항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대학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육원 및 가린, 단재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0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하우' 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